

지방자치·국제

국제사회 비난 불구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차기정부 남북관계 개선 환경 악화”

과도하게 추진땐 한·미간 갈등 빚을 수도

북한이 감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내년 초 출범할 한국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유력 여야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체로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어왔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타임 테이블’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